

기원전 4세기 진맥법 개발한 醫聖

중국의 편작 (扁鵲 기원전 401~310년)

朴星來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교수/파학사)

몇10년도 더 된 일이지만, 내가 고등학교에서 배운 송강(松江) 정철(鄭澈, 1536~1593년)의 「사미인곡」(思美人曲) 가운데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 “편작이 열이 오나 이 병을 어이하리!” 편작 같은 명의(名醫)가 와도 내 병은 고칠 수 없으리라는 말이다. 비슷하게 편작을 최대의 명의라 생각한 우리 선조들의 생각은 2백년 전의 여류 작품 「조침문」(用針文)에도 보인다.

“금년 시월 초십일 술시(戌時)에, 희미한 등잔 아래서 관대(冠帶) 깃을 달다가 무심중간(無心中間)에 자근동 부러지니 깜짝 놀라와라. 아야 아야 바늘이여, 두 동강이 났구나. 정신이 아득하고 혼백(魂魄)이 산란(散亂)하여, 마음을 뺏아 내는 듯, 이욕도룩 기색 혼절(氣色昏絕)하였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 만져 보고 이어 본들 속절없고 하릴없다. 편작의 신술(神術)로도 장생불사(長生不死) 못 하였네.”

정철의 「사미인곡」에도 등장

임진란 때 고관을 지낸 정철은 여러 차례 유배도 당하고 문필로 후세에 이름을 남긴 당대의 대표적 학자다. 그에 비하면 2백여년 뒤의 유(兪)씨 부인은 이름도 아무 것도 알려지지 않은 채 겨우 성(姓)만 전해지는 여류 수필

가이다. 그녀의 「조침문」이란 27년이나 써왔던 귀중한 바늘이 부러지는 것을 보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수필로 기록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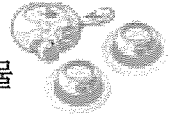
이 두 고전이 모두 편작(扁鵲)을 최고의 명의로 꼽고 있는 것이다. 우리 역사에 언제부터 편작의 이름이 등장했는지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대표적 명의로 꼽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편작은 실재했던 인물 같기는 하지만, 상당 부분은 전설 속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러나 요즘 중국 과학사 학자들은 그가 기원전 401년에 나서 310년에 죽었다고 쓰기도 한다. 그러나 기원전 4세기 사람이란 뜻이다. 그것은 전국(戰國)시대를 가리킨다. 그의 일생에 대해서는 중국의 고전적 역사책인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열전(列傳)에 그의 일생을 설명한 글이 남아 있다.

이에 따르면 편작은 이름이 진월인(秦越人)이고, 발해(勃海)의 정(鄭)나라 출신이다. 지금으로 치면 중국 허북성(河北省) 임구(任丘) 또는 산둥(山東)성 출신이다. 동아시아의 대표적 의성(醫聖)으로 추앙되게 된 편작에게는 당연히 알듯 모를 듯한 전설이 많다. 그는 젊었을 때 여관 주인 노릇을

했는데, 여관에 자주 찾아 오는 손님 가운데 장상군(長桑君)이란 이상한 사람을 좋아하여 잘 대우해 주었다. 그러자 그가 나이들어 죽을 때 편작에게 비방을 가르쳐 주게 되었다. 이리하여 그는 명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편작은 곽(虢)나라를 지나가다가 그 나라 사람들이 태자가 죽었다고 우는 소리를 듣고 이를 잘 살펴 본 끝에 죽었다는 태자를 살려냈다고도 전해진다. 사실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것이 아니라 아직 죽지 않은 태자를 잘 살펴 진단한 끝에 회생시키게 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여기서 나타나는 그의 의학방법은 바로 한의학의 특징의 하나인 사진법(四診法)이라는 진단방법이다. 사진(四診)이란 물론 글자 그대로 네가지 진단을 말하는데, 망진(望診), 문진(聞診), 문진(問診), 절진(切診)의 넷을 말한다. 이 네가지 진단법은 환자의 안색과 피부 등 용태를 살피는 망색(望色), 소리를 들어 보는 문성(聞聲), 환자에게 병세를 물어 보는 문병(問病), 그리고 맥을 짚어 보는 절맥(切脈)을 가리킨다. 특히 한의학사에서는 편작이 진맥법을 창시한 원조라고 한다. 「사기」 편작전 끝에 있는 다음과 같은 논평 때문에 시작된 학설이다. 즉 「사기」에 의하면



중국 최고의 명의(名醫) 편작(扁鵲)은 실재했던 인물인가 또는 전설 속의 주인공인가, 요즘 중국의 학자들에 의하면 편작은 기원전 4세기 전국시대의 사람으로 진맥법을 창시한 원조라고 한다. 중국의 고전적 역사책인 사마천의 「사기(史記)」 열전(列傳)에 편작은 동아시아의 대표적 의성(醫聖)으로 망진(望診)·문진(聞診)·문진(問診)·절진(切診) 등 사진법(四診法)을 개발한 주인공으로 기록되고 있다.

오늘날 진맥을 말할 때 사람들은 그것이 편작이 시작한 것이라 말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역시 「사기」 편작전에 나오는 일화다. 전국시대 제(齊)나라에 환공(桓公)이 임금으로 있을 때였다. 제나라가 한참 강성할 때였다. 이때 편작이 제를 방문하게 되니 환공이 듣고 편작을 온갖 예우를 다하여 대접했다. 그런데 편작이 환공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말하기를, 지금 왕의 병이 깊지 않으니 즉시 치료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하지만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병이 깊어져 치료하기 어려워진다는 경고도 곁들였다. 그러나 환공은 멀쩡한 자신을 환자로 취급한다고 생각하며 기분이 언짢아 했다.

그 후 닷새 뒤 편작이 다시 환공을 뵈고 하는 말이 왕의 병은 혈맥에 들어갔으니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더욱 치료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환공은 심히 불쾌하게 생각했고, 편작은 물러나 다시 닷새가 지나자 환공에게 아무 말 없이 떠나려 했다. 환공은 사람을 시켜 편작을 불러오게하여 떠나려는 까닭을 물었다. 편작은 “병이 가까이 있을 때는 탕약과 뜸으로 치료할 수 있고, 혈맥에 있을 때는 침의 효력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장 위에 있을 때는 주료의 효력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일단 골수에 들어가면 아무리 뛰어난 명의라도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의 병이 골수에 자리잡고 있어 이제 치료를 권하지 못 하셨습니다”고 대답하고 길을 떠났다.

병의 ‘六不治論’도 내놓아

다시 닷새가 지나 환공은 몸져누웠고, 곧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편작의 말이 ‘병을 고치기 어려운 6가지 경우’ 즉 육불치(六不治)론이다.

첫째, 교만하여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 둘째, 몸을 가볍게 여기고 오직 재물만 중히 여기는 경우 셋째, 먹고 입는 것이 알맞지 않은 경우 넷째, 음양의 조화를 피하지 못하는 경우 다섯째, 몸이 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여섯째, 무당을 섬기고 의원을 믿지 않는 경우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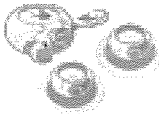
또 편작은 심장 수술의 원조라는 뜻의 일화도 전해진다. 이 이야기는 중국의 고전 「열자(列子) 제5장인 탕문편(湯問篇)에 나온다.

노나라의 공호와 조나라의 제영이 편작에게 병을 치료받았다. 치료를 마친 편작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대들의 병은 밖으로부터 내장을 침범해 생긴 병이기에 처음부터 약과 침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었소. 그런데 지금 그대들에게는 타고난 지병이 있는데, 몸과 함께 자라고 있소. 이제 그대들을 위해 그 병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어땠소?” 이 말에 두사람은 물었다. “원컨대 먼저 그 증상을 듣고 싶습니다.” 편작이 설명했다. “공호 그대는 의지가 강한데 기가 약하고, 제영 그대는 의지가 약한데 기가 강하오. 만약 그대들의 심장을 서로 바꾼다면 좋은 방향으로 균등해질 것이오.”

편작은 두사람에게 독주를 마시게 하니 사흘 동안이나 혼수상태가 계속되었다. 편작은 그 동안에 두 사람의 가슴을 갈라 심장을 바꾸어 놓아 두사람의 서로 극단적인 성격을 균형있게 바꾸었다는 것이다. 최근 몇십년 밖에 안된 심장 이식의 역사가 이미 2천여 년 전에 편작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말이다.

물론 이 「열자」의 기록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도교의 고전에 속하는 「열자」는 저자도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 2천년 전 자리잡은 중국의 고전인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에는 환상적인 이야기가 제법 많아서 다 믿을 수 없는 내용인 것이 많다. 여하간 이런



저런 전설을 통해 편작은 '동양의학의 아버지'로 역사 속에 굳건히 자리잡은 것이 사실이다. 마치 서양에서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가 수많은 전설 가운데 역시 '서양의학의 아버지'로 자리잡은 것처럼. — 특히 그가 육불치의 마지막으로 의사를 믿지 않고 무당을 믿는(信巫不信醫) 세대를 한탄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서양에서는 히포크라테스를 경계로, 그리고 동양에서는 편작을 경계로, 의학은 무당의 세계에서 의사의 일로 바뀌고 있었다는 역사적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편작의 죽음 역시 증명할 수 없는 전설로 장식되어 있다. 진(秦)나라에 태의령(太醫令) 이해(李醜)가 자객을 보내 그를 살해했다는 것이다. 태의령이라면 물론 진나라의 의학의 대표자란 의미겠는데, 군주와 고관대작을 돌보는 태의를 마다하고, 모두가 편작만 찾으니 태의령의 체면은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결국 편작은 태의령 이해 등에게 질시와 원망의 대상이 되어 암살당했다는 것이다.

편작의 묘 둘레에 있는 흙은 약으로 쓰이고 흙 속에서 나오는 흑갈색의 돌은 치료제로 쓰이는데 그 효험이 대단

하다는 기록도 있고, 썩이 많이 있는데 이 썩의 약효가 다른 곳의 썩에 비하여 월등히 뛰어났다는 기록도 있다. 편작의 묘는 임구현에 있으며 편작을 기리는 사당의 이름은 약왕사(藥王祠)다. 사당 앞에는 수백평의 땅이 있어, 병자가 점을 보아 점괘가 지시하는 방향의 흙을 약으로 사용하면 만병통치한다고도 전한다. 흙의 빛깔과 맛이 모두 다른데, 약효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많은 사람들이 흙을 채취하여 산이 평지로 변했다고 한다. 편작은 이와 같이 중국에서도 오늘까지 명의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다. ⑤7

과학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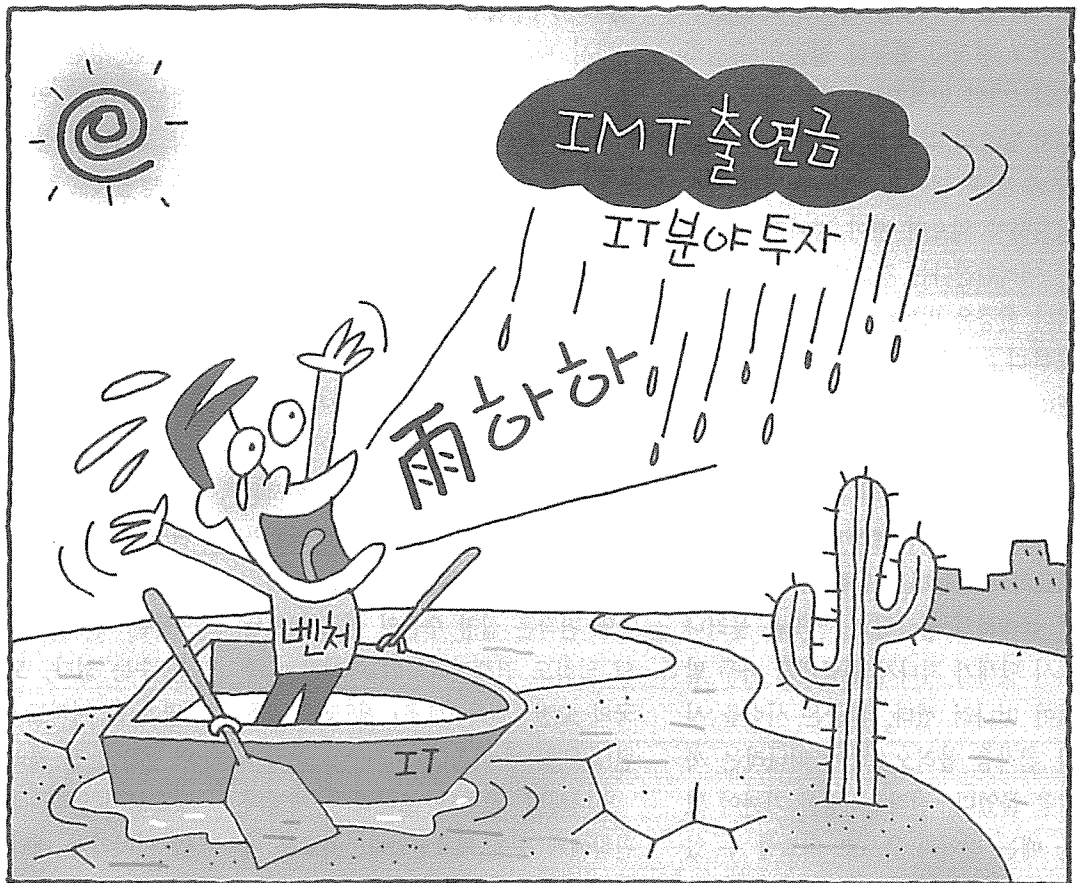


그림 : 崔民